

# Family TableTalk

Conversation 14

## 조절과 상식

### 본문

잠언 2:7-11

### 생각하기

나는 요즘 많은 시간을 새 사무실에서 창 밖을 내다 본다. 2020년에 나나 나의 남편이 사무실을 새로 얻을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았었지만,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손님방으로 썼었던 방은 그의 새 사무실이 되었고, 그의 새 사무실은 우리 집 뒷마당의 풍경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나는 끝이 없는 행렬의 뛰는 사람들, 걷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아기 유모차를 미는 엄마, 아빠들 (우리 집앞을 지나는 한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을 보고 있을 때, 남편은 봄의 소식을 알리는 나무와 꽃들의 변화들을 바라본다. 이 나무와 꽃들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떠한 조절을 하지 않아도 된다 - 이 땅에 사는 모든 우리 거주자들이 심각한 변화에 직면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정해 놓으신 질서대로 계속간다.

지난 6주간을 한 마디로 종합해 본다면 - 조절; 때론 작게, 때론 크게, 대 부분의 사람들은 “질수 밖에 없는 경기” 를 하는 듯한 마음을 갖게 된다. 우리의 정신과 마음은 힘을 다해 새로운 기능을 배워야 하고, 부모들은 선생님의 역할을 하고, 우리는 가족간에 새로운 방법으로 상호작용하며, 전 보다 많은 시간들을 함께 지내고, 불 확실함 가운데 새로운 공간 속에서 가족 전체가 살아야 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본문의 말씀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함을 상기시켜 주는데, 하나님은 지식과 지혜를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상식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사랑한다. 이 이례적인 시간속에 엄청난 보물이 아닌가! -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은, 복잡하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이 특별한 시간들 속에 서로가 어떻게 조절하며 살아야 하는지 묻고, 더 하자면, 함께 평화롭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 우리 가족안에서는 어떤 조절을 하게 되었는가? (공간, 스케줄, 방식, 참여해야할 활동을 할 수 없게 된것 등등)
-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고 변화가 없는 것에는 무엇이 있는가?
- 당신의 가족들이 모든 것이 관찮아 질거라는 마음이 들수 있도록, 당신은 어떤 기초를 가지고 도움을 주고 있는 가?

### 적용

###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현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복잡하게 조절하지 않도록 도와 주소서; 우리가 서로에게 지혜롭고, 올바름도록 도우시고, 그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직하도록 도와 주소서.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는 안전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 우주만물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진리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 by Amy Flavin

Amy Flavin is Associate Staff for CPYU, Psych professor (18 years), counselor in private practice (27 years) - working with individuals, families, and adolescents - and is married to a full-time youthworker for nearly 40 years. She is currently fortunate to have an office with a view!

cpyu.org



© 2020 Center For Parent/Youth Understanding